





공화국의 기치따라 승리와 변혁의 70년

백두산이 솟아 빛나는 영광의 땅이여, 무궁토록 번영하라

위대한 사랑과 전변의 력사 전하는 량강도를 돌아보고

우리 공화국의 강용한 기상과 더불어 이 나라 북녘의 자랑스런 전변의 력사 전하는 량강도.

혁명의 만년재보로 빛을 뿌리는 대로천박물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량강도는 국보적인 도입입니다.》

혁명전동포교양의 대로천박물관으로 전변된 량강도의 력사는 백두산의 위대한 아들이신 우리 장군님의 발걸음을 따라 긍지높이 아래서져져 지 되었다고 량강도사람들은 누구나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였다.

영광스러운 우리 공화국의 70년사를 긍지높이 떠드는 우리의 기행은 여기 유서깊은 혁명전적지대에서부터 시작된다.

주신것 아니던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정신적기둥인 백두산밀영고향집을 소중한 안고있어 그 이름 더욱 빛나는 량강도, 정일봉기사의 백두산밀영고향집앞에서 우리 공화국의 력사가 바로 이 성스러운 고향집과 잇닿아있음을 절감하게 되었다.

바로 여기가 우리 공화국의 70년의 물결쳐오는곳이다. 어디 가나 신록이 짙어가건만 백두산은 맑고서 사나운 겨울이었다. 지쳐처럼 보였지만 쏟아져내리는 강설을 헤쳐며 백두산으로 오르자니 조련치 않았다.

바라여기가 우리 공화국의 70년의 물결쳐오는곳이다. 승리의 최정령이라는 격정으로서 심장이 뾰뚱 뿔뿔였다. 우리 공화국에 위대한 승리의 력사를 광휘롭게 수놓아올수 있는것은 바로 여기 백두산에서 시작되고 백두산과 더불어 깎듯이 이어지는 조선혁명의 명맥, 절세의 위인들의 불멸의 혁명 력사를 빛내는 백두의 혁명전공이 있었기때문이다.

서도 획기적인 전변이 일어나고있다고 군의 일군은 말하였다. 결코 농사 자만이 아니었다. 자력생명의 기치 높이 기계농사의 새시대를 맞이했다고 하면서 1만정도의 개간된 땅에서도 감자농사의 통장훈을 부를 날이 멀지 않았다고 사람마다 신심에 넘쳐있었다.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휘황한 설계도를 펼치고 힘차게 전진하는 백담의 매일은 또 얼마나 눈부실던가.

천지개혁을 노래하는 백두대지

백두산기슭의 천지개혁, 이것은 우리 공화국의 부강민국의 대서사시인 량강도이었고는 또 하나의 역사적기둥이다.

백두산기슭의 천지개혁, 이것은 우리 공화국의 부강민국의 대서사시인 량강도이었고는 또 하나의 역사적기둥이다.

백두산기슭의 천지개혁, 이것은 우리 공화국의 부강민국의 대서사시인 량강도이었고는 또 하나의 역사적기둥이다.

백두산기슭의 천지개혁, 이것은 우리 공화국의 부강민국의 대서사시인 량강도이었고는 또 하나의 역사적기둥이다.

《백두산의 산악미를 자랑하는 거대한 산봉우리를, 폐부아 켜켜이 뽐내며 천공의 궁극, 푸른기 펠펫 휘날리며 깔깔이 흐르는 담사대... 량강도 소재지 해산사는 이런 놀라운 승설로 우리를 맞았다.》

이제껏 백두산기슭에 새로운 도를 내오기 위한 웅대한 구상을 펼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백두산천지를 시련으로 압축당과 두만강이 흐르나고 하여 《량강도》라고 그 이름까지 친히 지어주시였었다. 아마도 량강도의 전변사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혁명전동포교양의 대전당, 대로천박물관으로 전변된 것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이제껏 백두산기슭에 새로운 도를 내오기 위한 웅대한 구상을 펼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백두산천지를 시련으로 압축당과 두만강이 흐르나고 하여 《량강도》라고 그 이름까지 친히 지어주시였었다. 아마도 량강도의 전변사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혁명전동포교양의 대전당, 대로천박물관으로 전변된 것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이제껏 백두산기슭에 새로운 도를 내오기 위한 웅대한 구상을 펼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백두산천지를 시련으로 압축당과 두만강이 흐르나고 하여 《량강도》라고 그 이름까지 친히 지어주시였었다. 아마도 량강도의 전변사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혁명전동포교양의 대전당, 대로천박물관으로 전변된 것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이제껏 백두산기슭에 새로운 도를 내오기 위한 웅대한 구상을 펼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백두산천지를 시련으로 압축당과 두만강이 흐르나고 하여 《량강도》라고 그 이름까지 친히 지어주시였었다. 아마도 량강도의 전변사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혁명전동포교양의 대전당, 대로천박물관으로 전변된 것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이제껏 백두산기슭에 새로운 도를 내오기 위한 웅대한 구상을 펼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백두산천지를 시련으로 압축당과 두만강이 흐르나고 하여 《량강도》라고 그 이름까지 친히 지어주시였었다. 아마도 량강도의 전변사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혁명전동포교양의 대전당, 대로천박물관으로 전변된 것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이제껏 백두산기슭에 새로운 도를 내오기 위한 웅대한 구상을 펼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백두산천지를 시련으로 압축당과 두만강이 흐르나고 하여 《량강도》라고 그 이름까지 친히 지어주시였었다. 아마도 량강도의 전변사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혁명전동포교양의 대전당, 대로천박물관으로 전변된 것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혁명전적지!》 량강도를 혁명전동포교양의 거점으로 삼은 우리들은 량강도를 상징하는 그 낭떠러지 부부의 의미를 절감할수 있었다.

《혁명전적지!》 량강도를 혁명전동포교양의 거점으로 삼은 우리들은 량강도를 상징하는 그 낭떠러지 부부의 의미를 절감할수 있었다.

《혁명전적지!》 량강도를 혁명전동포교양의 거점으로 삼은 우리들은 량강도를 상징하는 그 낭떠러지 부부의 의미를 절감할수 있었다.

《혁명전적지!》 량강도를 혁명전동포교양의 거점으로 삼은 우리들은 량강도를 상징하는 그 낭떠러지 부부의 의미를 절감할수 있었다.

《혁명전적지!》 량강도를 혁명전동포교양의 거점으로 삼은 우리들은 량강도를 상징하는 그 낭떠러지 부부의 의미를 절감할수 있었다.

《혁명전적지!》 량강도를 혁명전동포교양의 거점으로 삼은 우리들은 량강도를 상징하는 그 낭떠러지 부부의 의미를 절감할수 있었다.

《혁명전적지!》 량강도를 혁명전동포교양의 거점으로 삼은 우리들은 량강도를 상징하는 그 낭떠러지 부부의 의미를 절감할수 있었다.



글: 본사기자 김준혁, 사진: 본사기자 림정호, 본사기자 리진명





